

『漢方醫學講習書』 研究

정지훈¹⁾

Study of 『HanBangEuiHakGangSupSeo』

Jung Ji Hun

『HanBangEuiHakGangSupSeo』 is a total medical book written by Sung Joo Bong and published in 1935, to be used in a Korean medical school in Daejeon. It was published to raise generation and reconstruct Korean medicine and get the authors medical experiences across to lots of people and get it more useful.

『HanBangEuiHakGangSupSeo』 strengthen the study of classics of Korean medicine and it shows various efforts to reconstruct Korean medicine done those days.

I. 서론

『漢方醫學講習書』는 成周鳳이 대전에서 의생양성기관이던 한방의학강습소의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1935년에 간행한 종합의서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제시대 후반기 漢醫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몇몇 사전류의 서적에서 극히 일부의 정보를 담고는 있지만,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다고 할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당시의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의 내용만을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漢醫學復興論을 펼치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漢醫學復興論과 연계된 눈으로 이 책을 읽어나가자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1935년에 간행된 成周鳳의 『漢方醫學講習書』에 보이는 교과목의

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구성 및 내용 등을 통하여 漢醫學講習所의 교육내용과 이를 통한 漢醫學復興에의 의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는 먼저 『漢方醫學講習書』의 저자, 연대, 목차, 발간목적 등을 밝혔다. 그리고, 교육내용, 학술사상 등의 소재목으로 『漢方醫學講習書』에 보이는 漢醫學復興論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漢醫學復興論이 미친 영향이 갖는 의의를 서술하였다.

II. 『漢方醫學講習書』에 대하여

1. 저자

『漢方醫學講習書』의 저자는 成周鳳이다. 그는 1868년에 태어났으며 사망연도는 확실하지 않은 한의사이다. 그의 호는 怡雲이다. 성주봉은 1930년대 말에 忠南醫藥組合에서 발간한 『忠南醫學』誌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였으며, 동 잡지에 『傷寒論』과 『景岳全書』에 대한 강의 형식의 글을 연재하였다. 그는 특히, 『傷寒論』에 조예가 깊었던 한의학자이다.

2. 발간연대

『漢方醫學講習書』는 1935년 4월에 초판이 발간되었다. 1936년 3월에 재판이 발간되었으며, 그 이후에 더 이상 발간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충청남도 大田에서 발간되었다.

3. 목차

『漢方醫學講習書』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은 여러 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第一卷 七十二課, 第二卷 三十三課, 第三卷 三十三課, 第四卷 五十六課, 第五卷 四十五課, 第六卷 四十課 등 모두 二百七十九課로 되어 있다.

第一卷은 陰陽五行, 臟腑, 經絡 등 한의학기초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二卷은 中風과 傷寒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三卷은 傷寒 및 溫疫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四卷은 中氣, 氣血病, 消渴, 痰飲 등 각종 雜病으로 구

성되어 있다. 第五卷은 癰疽, 婦人, 小兒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六卷은 약물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발간목적

『漢方醫學講習書』의 발간 목적은 이 책의 머리에 있는 몇 개의 서문과 마지막에 있는 발분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池錫永은 서문을 통하여 “……지금 怡雲 成周鳳 선생이 지은 『漢方醫學講習書』를 펼쳐보니 마음 가득히 기뻐서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었다. 우리 조선의 의학은 이전에는 강습의 범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뜻대로 책을 펼쳐보고서 뜻을 세워 자기의 견해로 삼았다. 그리하여 전체가 통일됨이 없어서 張씨의 설과 李씨의 설이 서로 다투어서 자신의 것만을 옳다고 여겼으니 통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이 책을 펼쳐보니 문을 나열하고 과를 구분한 것이 학교의 규칙을 모범으로 삼았으니 깊이 교육 체제에 잘 들어맞는다. 만약에 중등고등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에게 끌어서 가르쳐 준다면 가히 하여금 폐절되어가는 漢醫學이 復興될 것이다. 조선의 명의를 배출될 것을 기다리면 오직 우리 동포가 모두 수역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니 어찌 가히 단지 몇 마디 말로써 축하할 수 있겠는가……”²⁾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漢方醫學講習書』의 발간 목적이 한의학을 담당할 후진 양성을 통한 漢醫學復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韓致愈는 다른 序文에서 “……나의 벗 怡雲 성주봉은 어진 사람이다. 자신을 수양한 학문은 있었지만 남을 다스릴 지위가 없어서 일찍이 후진을 가르침에 관직에 들어서서 세상을 맑게 하고자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시대와 유행이 바뀌어 교습방법이 또한 크게 바뀌었으니 선생이 속세에 미련을 두지 않고 물러나서 이렇듯 몸을 마치고자 하였으나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넘치셨으니 실로 내 벗의 타고난 바탕이다. 이에 軒轅, 岐伯의 서적을 취하여 마음을 오로지하여 깊이 연구하기를 10년간 하셨으니 그들은 통발이나 올라미처럼 오래된 것이지만 그 잡힌 물고기나 토끼는 항상 새 것이로

2) 序文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蓋飢而食病而藥 人生不可闕之一大事也 但飢而食與病而藥 所重雖同 而或因事勢可飯而粥無甚危險之立 至若病之於藥 宜服參朮者誤用柴芩 則性命立判然 則病之於藥與飢之於食 其所關係尤甚巨大 豈非大可畏哉 余自弱冠有志于青囊之學 而才少智短無所成就 至于白髮 有時自歎不能已已 今閱成怡雲先生周鳳氏 編集漢方醫學講習書 滿心欣喜不忍釋手翳 我朝鮮醫學由來無講習之規 恣意披覽立爲己見 故全無統一張李相角以我不佞獨自限焉 今見此書 列門分課模範學校規則 深得教育體裁 若令青年中高等卒業者 引而授焉可使幾廢之 漢醫復興埒見朝鮮之國手輩出 唯我同胞成躋壽域 詎可但以言辭賀也 靜室焚香稽首謹書
太原后人松村 池錫永

다. 치료를 행하여 병어리가 웃음을 회복하고, 강의하는 것에 미치는 바가 귀먹은 이가 다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어질도다! 어진사람의 마음 씩씩이여! 선생께서 평일의 강의하시던 바를 모아서 몇 권의 책으로 엮어서 항상 옆에 두고 익혀서 사람들이 재주를 부리거나 더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³⁾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漢方醫學講習書』의 발간 목적이 저자의 의학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쓰임새를 넓히고자 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成周鳳은 緒言을 통하여 “……최근 세계의 운세가 크게 열려 구라과와 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발전하여 백공의 기예가 더욱 더 정밀해졌다. 애석하도다. 우리나라의 의약가들이 이러한 어지러운 때를 만나서 어찌 위축되고 한발짝 물러나서 조용히 있을 것인가. 내가 이에 진실로 삼가 강구하는데 뜻을 두어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모으는데 힘썼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素問』, 『靈樞』를 비롯한 모든 의경들은 그 뜻이 심오해서 대부분 풀기가 어려우며 또한 예로부터 전해내려 오는 의서들은 순전히 한자로 쓰여 있어 후생들이 학식이 없어서 대부분 본디 취지에 어두웠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가 고급제서에 의거하여 강습서 한권을 편집해서 그 번한 것은 없애고 그 정밀한 것만 취했으며 조선말과 한자를 아울러 써서 구독하기에 편하게 하였다. 이 어리석고 우둔한 나 자신을 돌아보건데 참람되고 망령된 짓임을 매우 잘 알지만, 오로지 앞선 성인들의 유지에 위배됨이 있을까 두려울 따름이다. 비록 좁은 식견이기는 하지만 감히 그 설명은 손대지 못하고 단지 고경을 바탕으로 뜻만 풀었을 따름이다.”⁴⁾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漢方醫學講習書』의 발간 목적이 저자 자신이 古醫經의 어려운 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학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 책을 지었음을 알 수 있다.

3) 서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仁人於世致澤其本志也 然此則有命存焉 如不得行其志 則安於適輒亦其本分也 然仁人之心自有惻怛不能已者 雖欲學荷箕晨門之果於忘世不可得也 吾友怡雲成周鳳仁人也 有修己之學無治人之位 嘗教授後進欲資此而淑諸世 不幸世運遷流教術一變 君卷焉退藏若將終身 而過於惻怛實君之天賦也 乃取軒岐書專心講究 積十數年 筌蹄雖舊魚兔常新刀圭 所施呻嚙回笑 講演所及聾聵盡醒 賢矣哉 仁人之用心也 君蒐輯平日所講課彙 爲若干卷將付手民不佞忝 在同聞知其本末甚詳遂以此書之卷端 噫 人如怡雲誠此世之火中蓮也 歲癸酉端陽日 前務安府尹 西原 韓致愈書

4) 서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漢方醫學古聖人財成輔相之一道也 農黃以後名醫代作闡明斯道 若秦越人之難經 張長沙之金匱 述先聖之遺法 啓來哲之大業 於是乎歷代名家依此著作 其書至於汗牛充棟 莫非後人明鑑 我東醫家亦以此道 講明斯書爲濟民寶筏其來久矣 挽近世運大關 歐亞文化互相發展 百工技藝精益求精 噫 我醫藥家遭此 非常之時 何乃萎靡退縮寥寥不振也 愚於此實惓惓有講究之志 而亦以勉同好焉 竊念素靈諸經旨意 微奧類多難解且由來醫書純是漢字 後生淺學多味歸趣 是以謹依古今諸書編成講習一書 去煩取精兼用鮮漢字以便句讀 顧此樵魯極知僭妄惟恐有違於前聖遺旨 雖有管見不敢芻說 只因古經而釋義而已 苟軒岐良法未欲淪喪天挺才智必有名世者 四海匪遙岐而埃之云 歲癸酉四月上浣 著者題

Ⅲ. 『漢方醫學講習書』 교육내용을 통하여 살펴본 漢醫學復興論

1. 漢醫學古典 교육의 강화

『漢方醫學講習書』의 교과과정 내용은 한의학고전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이는 각종 한의학 고전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진정한 한의학 교육의 방법임을 저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하고 있다. 『東醫寶鑑』과 같이 각과의 각 내용 및 처방의 아래에 출처를 써놓아야 하는데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인용서적의 목록을 일괄적으로 기록한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漢方醫學講習書』에서 인용한 한의학고전은 다음과 같다.

黃帝素問內經	景岳全書	王燾外臺方
黃帝靈樞	直指方	東垣十書
脈經	本草綱目	朱肱活人書
扁鵲難經	黃氏八種書	丹溪心法
仲景全書	醫學入門	東醫寶鑑
三因方	千金方	濟衆新編
幼幼集成	辨證奇聞	萬病回春
大生要旨		

『漢方醫學講習書』에는 성주봉이라는 저자의 영향 때문인지 위의 고전들 중 특히, 『傷寒論』의 내용이 강화 되어 있다. 『漢方醫學講習書』의 내용은 성주봉을 발행인으로 하는 『忠南醫學』 지에도 강의형식으로 계속 연재한 것과 내용상 같다. 『忠南醫學』이 이 책이 나온 후에 나온 것으로 보아 『漢方醫學講習書』의 내용을 후에 『忠南醫學』에 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잡지에 연재된 문장의 문투가 한문투가 많이 사라지고 보다 더 현대적 문체로 바뀌었을 뿐이다.

『漢方醫學講習書』의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은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의학강습소의 교과과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전적으로 한의학만

을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는 1930년대의 민족주의적 한의학으로 복귀한 증거라고 말하기 부족한 점이 있다. 이는 당시에 저자가 발행한 『忠南醫學』지에 실린 당시의 의생시험문제가 여전히 서양의학과 한의학의 비율이 반반씩 섞여 나오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의생시험을 준비하던 의학도들이 전적으로 이 책만을 보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 漢醫學古典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한 점은 漢醫學復興論의 분위기가 이 시기에 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 독특한 수업방식

『漢方醫學講習書』의 범례에 나와 있는 한방의학강습소의 수업방식은 이채롭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번 한과를 삼일동안에 첫날에는 강의만하고, 둘째 날에는 복습하고, 셋째 날에는 토론한다.

1년 360일 동안에 경축일과 일요일과 여름방학 30일 겨울방학 20일 등 도합 109일을 빼면 실제로 강습하는 날은 250여일에 90여과 남짓이다. 이와 같이 하기를 3년 하면 전 과정이 끝난다.

졸업기한 3년을 채운 다음에 전과를 다시 통합하여 1년 동안 강습한 다음에 시험을 보아서 1등부터 6등까지는 합격을 시켜서 졸업증서를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1년을 강습하여 다시 시험을 봐서 1등부터 6등까지는 합격을 시키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또 1년을 강습하여서 도합 6년을 채우면 모두 졸업을 시켰다.

강습소에서 함께 교과를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홀로 수업한 사람들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강습소장의 시험을 거쳐서 수업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책은 비록 의업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집안에 비치해 두고서 평상시에 열람해 본다면 당연히 가정위생의 요도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당시에 경쟁력 있는 많은 의생을 배출하고자 하는 의도의 표현으로 여겨진다.

또한, 강습방법이나 교육기간 등은 범례를 통하여 알 수 있으나, 당시 강습소의 인원이나 강습소의 규모, 졸업 후의 활동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당시 『忠南醫學』誌를 중심으로 행하던 강습소를 사칭하여 다른 강습소가 열려서 이를 주의하라는 경고의 글이 잡지에 실린 것으로 보아 다수의 강습소가 운영되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3. 올바른 醫人의 양성

『漢方醫學講習書』에는 한방의학강습소에서 인격을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인물의 가장 큰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 있다. 다음과 같다.

“수학심득

상천의 생명을 애호하는 덕에 뜻을 세우고

병에 임하여 빈부의 차등을 두지 않으며

침잠 반복하여 고향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도 희생하기를 바란다.

앞선 성인들의 자신을 미루는 어진 마음씨에 마음을 두어

약을 씌에 항상 보사를 신중히 하고

전전궁궁하여 환자에 임하여 환자가 원망을 품거나 명을 달리하는 일이 있을까 근심한다.”⁵⁾

이는 강습소의 교육목표가 기술만을 지닌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궁휼히 여기는 의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데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 1930년대 한의학의 모습

『漢方醫學講習書』는 1930년대의 한의학 강습소에서 교재로 사용된 서적이다. 이 책이 당시 서울에서까지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저자가 활동하였던 대전 및 충청남지역에서 많은 이들에게 읽혔을 것으로 추측된다. 『東洋醫藥』에 본 서적의 광고가 나와 있고, 趙憲泳과 金永勳이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한 것으로 보아, 전국에서 많은 이들이 구입하여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東西醫學研究會에서 발간한 『東洋醫藥』에 보이는 당시 한의계의 모습을 통하여도 알 수 있다. 당시 東西醫學研究會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漢方醫學講習會에 강사를 파견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또한 『忠南醫學』지의 발행과 大田지역의 강습회에 관한 소식을 싣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은 당시 漢醫學復興을 위한 韓醫界의 다양한 노력들을 잘

5) 修學心得

立志乎上天好生之德

臨病勿以貧富有差等

沈潛反覆祝痼盲回甦

存心乎先聖推己之仁

用藥恒以補瀉爲慎重

戰兢臨履恐含怨幽明

보여 주는 것이다.

IV. 결론

『漢方醫學講習書』는 成周鳳이 대전에서 의생양성기관이던 漢方醫學講習所의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1935년에 간행한 종합의서이다. 한의학을 담당할 후진 양성을 통한 漢醫學復興과 저자의 의학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쓰임새를 넓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다. 『漢方醫學講習書』의 내용은 漢醫學古典 교육의 강화를 통한 올바른 醫人을 양성하는 등 당시 漢醫學復興을 위한 韓醫界의 다양한 노력들을 잘 보여 주고 있다.

V. 參考文獻

1. 성주봉. 『漢方醫學講習書』, 泰平堂, 忠淸南道 大田, 1935.
2. 趙憲泳. 『東洋醫藥』 第一號 ~ 第三號, 東洋醫藥社, 京城, 1935.
3. 맹웅재 외. 『韓國醫藥人名事典』, 의성당, 서울, 1991.
4. 정지훈. 「日帝時代初期韓醫學術雜誌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